

“강진읍 얼굴, 영랑로 바뀐다”...지역 명소 변신

강진군은 '강진읍 美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영랑로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가을까지 기존 목재 화분이 있는 영랑로에 야간 조명을 포함한 성벽 화단을 배치하고 터미널 부근 조형물 리모델링 해 간이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읍 美프로젝트'는 강진읍 시가지 일대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아름답고 쾌적한 강진읍을 만드는 경관 개선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영랑로는 강진읍의 중심지로, 탐진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와 연결돼 도심의 중앙축 역할을 하며 유동 인구가 많다.

특히, 강진버스터미널이 자리해 있어 관광객에게 강진의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공간이다.

앞으로 영랑로 일대는 ▲터미널 입구 옆 기존 조형물 리모델링 ▲메가커피 앞 교통섬 내 간이쉼터 조성 ▲영랑로 보도 옆 배치된 기존 화분

교체 후 성벽 화단 설치 ▲택시 승강장 옆 성벽 화단 설치 등 총 4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화분이 위치한 구간만 실시할 예정이고 터미널 입구 부근에 조성될 조형물 및 성벽 화단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높이와 면적으로 설치해, 안전사고와 군민 불편 방지를 위해 안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 심사 등 차후 절차를 이행 후 올 가을,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의 중심지 강진읍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진읍 美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객 5만 명 유치의 시작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과 군민들의 미소”라고 강조했다. /박종욱 기자



강진군은 '강진읍 美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영랑로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가을까지 기존 목재 화분이 있는 영랑로에 야간 조명을 포함한 성벽 화단을 배치하고 터미널 부근 조형물 리모델링 해 간이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군 제공

영암군-중소기업음부즈만 기업 규제 해결 간담회 가져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중소기업음부즈만이 최근 대불산단에서 '기업 규제 해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불산단 기업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박주봉 중소기업 음부즈만, 대불산단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외국인 투자 지역 임대료 감면 ▲녹지 진입도로 설치 기준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등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과 개선방안이 공유됐고, 조선업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박 음부즈만은 사전 건의사항, 간담회 제출 의견 등을 토대로 담당 부처와 협의해 기업 애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부처 및 음부즈만과 협업해 기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재개 결혼이주여성 3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친정나들이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안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가정, 22명의 부부와 18세 미만 자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정나들이 위한 항공권을 배부하고 일정 및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신안군은 올해 4천만원을 들여 1가정당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등을 포함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중 친정 나들이 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취득, 교육참여도 등을 고려해 11가정(베트남 7가정, 캄보디아 3가정, 중국 1가정)을 선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지역에

서 열심히 살아온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방문을 축하하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와 엄마의 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안전한 여행길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도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기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취득, 참여도에 앞서 지인소개 결혼성사 실적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안군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시 한 국어반 운영, 취·창업 교육, 온라인 국적 취득 교육 및 찾아가는 자녀 생활 교육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언어 소통과 자녀 양육,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흥근 기자

목포, (주)세원하드페이징과 투자협약 체결

목포시가 목포세라믹산단에 입주한 (주)세원하드페이징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도가 최근 전남 서남권 발전을 위해 전남도도의 6개 시군과 8개 기업과 함께 전남도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세원하드페이징은 목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홍률 목포시

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주)세원하드페이징 관직원 대표, 시군 단체장 및 기업대표 등 전남 서남권 6개 시군 8개 기업이 참여했다.

목포시 투자기업인 (주)세원하드페이징은 전북 완주에 본사를 두고 2018년 목포세라믹산단에 입주한 세라믹 관련 제조업체로, 올해 7월 중 목포세라믹산단 미분양부지 1필지(5,033.4㎡)에 총 100억원 규모를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세라믹산단 2필지를 추가 매입해 1만9천950㎡의 부지에 총 500억원을 누적 투자함으로써 세계적인 세라믹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세라믹산단이 명실상부한 세라믹 산업 최고의 클러스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생태 기자

무안군 4-H연합회 과제 답 풍년기원제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몽탄면 구산2리에서 무안군4-H연합회(회장 양현승)가 과제 답에 모내기하고 풍년기원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제 답 운영은 '무안군4-H연합회'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활동 중 하나로, 회원이 공동으로 벼를 재배해 농업 신기술을 실증하고 수확물을 요양원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날 모내기는 짙은 볏씨를 눈에 직접 뿌리는 드론 항공 직파로 진행했는데 이는 모판 준비를 위한 약 1개월의 기간과 투입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로, 과제 답 900평 중 450평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이앙을 해 향후 수확 수량과 품질 등을 비교 실증할 예정이다. /고민재 기자

함평,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박차

함평군이 역점 추진 중인 '돌머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이 공정을 80%를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사업은 ▲해안안전시설 확충 ▲돌머리 커뮤니티센터 ▲귀어귀촌빌리지(8개동) ▲돌머리 방앗간 ▲해수품질 정비 ▲돌머리·주포항 시설 및 경관 정비 등이다.

군은 오는 7월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기존 해수욕장, 갯벌탐방로 등의 시설을 개선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수와 유황석을 활용해 맑은 빼며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는 돌머리 해안치유(해수찜)센터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해수찜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천122㎡ 규모로 건립되며, 해수탕, 해수찜, 사우나, 카페 등 치유와 휴양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